

## 1919년은 어떻게 기억되는가 II

### - 3.1운동 100주년 기념식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의 수행을 중심으로\*

태지호\*\*

#### 【 차 례 】

- I. 들어가는 글
- II. 기억, 기념식, 기념식 중계
- III. 연구 방법론적 설정
- IV. 송고와 유희의 이중주로서 1919년 기념식 중계
- V. 나가는 글

#### 국문초록

본 연구는 3.1운동 100주년 기념식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을 통해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에 대한 기억이 현재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억과 기념식 그리고 기념식 중계가 일련의 연속적인 재현이라는 과정에 놓여있음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기념식과 기념식 중계는 제도적 실천과 재현 관습을 내포하고 있음을 다루었다. 우선 기념식에 대해 참여자들의 몸에 체화되는 기억 퍼포먼스로서, 이는 근대적 통치성을 담지하고 있음을 논의하였다. 이후 기념식 중계에 대해서는 그것이 일상의 문화 정치의 전형으로 제시되는 미디어 이벤트의 특성을 공유함과 동시에 그것은 텔레비전 방송 재현 시스템 속에서 구성된 몽타주 기억임을 다루었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 본 연구는 기념식 중계를 구체적인 연구 대상으로 삼고, 이를 통해 기념식의 의미와 더불어 그것의 중계

\* 본 연구는 2020년도 한국기호학회 추계학술대회 ‘기호학과 권력’에 발표된 원고를 수정 및 보완한 논문임.

\*\* 안동대학교 사학과, 교수, [tae7675@anu.ac.kr](mailto:tae7675@anu.ac.kr)

가 재현되는 양상을 다루었다. 연구 결과, 이 둘 기념식 모두 기념사의 의미를 공고히 함과 동시에, 숭고와 유희라는 대별되는 가치를 대중적인 참여와 미디어의 향연을 통해 수행되는 문화적 실천임이 확인되었다. 아울러 기념식 중계는 기념식 실황에 매체 구성적 실천이 더해진 새로운 미디어 이벤트임도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저자의 기존 연구인 ‘1919년은 어떻게 기억되는가’에서 다루지 못한 기념식을 논의함으로써, 기존 연구를 계승 및 보완하는 동시에 연구사의 연속성을 강화하는 연구로 의의를 가진다.

열쇠어 : 기념식, 기념식 중계, 미디어 이벤트, 문화적 기억, 기억 재현, 3.1운동, 대한  
민국임시정부

## I. 들어가는 글

뒤르켐은 사회적 현상과 특질에 대해, 집단 의식(意識)과 집단 표상(表象)으로 개념화하면서, 개인의 행위와 구별되는 사회적 사실로서 논의할 바 있다. 집단적 행위는 개인 행위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며, 개인에게 구속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사회적 행위 양식을 의미한다.<sup>1)</sup> 이러한 관점은 근대 이후, 사회가 정치적으로는 민주제로서,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적 생산 및 소비 시스템으로 인해 새롭게 재편되는 과정에서, 종교적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전통 사회와는 다른 정체성이 개인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과도기적 상황을 논의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이는 거시적인 차원의 정치 및 경제 제도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근대 민족 국가로부터 지금의 현대 사회에 이르는 새로운 문화적 질서 및 규범들이 어떻게 제도화되는가 그리고 그것은 개인의 외부로부터 어떻게 스스로 권리를 획득하는가를 다루기 위한 시발점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다룰 기념식은 이러한 문제 의식과 맞닿아 있다. 기념식은 기념이라는 특별한 기억을 위한 의식(儀式)이다. 기념식은 기념을 가

---

1) Durkheim, E., *(Les) Regles de la methode sociologique*, 윤병철 외 역, 『사회학적 방법의 규칙들』, 새물결, 2001.

시적으로 드러내고, 그 기념의 의미를 공고히 하며, 현재 구성원들의 존재를 재확인하는 문화적 실천이다. 기념식은 개인이 아닌 집단적으로 진행되고, 이를 통해 집단적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과정의 일환이다. 따라서 기념식은 특정한 시·공간적 조건 속에서 거행되며, 기념의 의미는 해당 시간동안 기념식에 직접 참석하고 그곳에 ‘같이 있음으로서’ 확인됨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와 더불어, 현대 사회의 미디어의 발달 및 보편화와 더불어 그 공공재적 특성으로 인한 제도적 규범으로 인해, 이제 기념식은 ‘안방’이나 ‘거실’에서도 참석이 가능해졌다. 이는 기념식 중계방송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기념일에 대한 의미를 가정에서도 (재)확인 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 근거하여, 기념식을 다루되, 이것이 중계되는 양상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사례는 기념식 중계이지만, 연구 대상과 범위는 기념식으로 확대된다. 즉 기념식 중계를 통해 기념식을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며, 기념식 거행이 기념식 중계라는 영상 기호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재현적 특성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무엇보다, 본 연구는 기념식의 변용 과정으로서 기념식 중계를 다루는데 집중하며, 그에 따른 기념식 중계의 형식적 특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범위 및 초점과 관련된 이유는, 기념식의 내용적 특성이나 그 메시지는 기념사라는 기념 서사를 통해 구체화되는데, 본 연구에서 다룰 3.1운동 100주년 기념식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의 기념사 연구는 이미 제시된 바 있기 때문이다.<sup>2)</sup>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기념사 연구를 수용함과 동시에 해당 연구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기념식에 대해 논의를 집중함으로써, ‘1919년은 어떻게 기억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더욱 심화시켜 살펴보고자 한다.

2) 태지호, 「1919년은 어떻게 기억되는가 -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를 중심으로」, 『기호학연구』 63, 한국기호학회, 2020, 209~241쪽.

이를 위해 본 연구가 선택한 사례는 KBS의 3.1운동 100주년 기념식 중계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 중계이다. 해당 기념식이 다른 방송국을 통해서도 중계되었지만, 본 연구에서 KBS 기념식 중계를 다루는 이유는 무엇보다 해당 방송 중계가 차지하고 있는 제도적 특성과 기념식과의 관계 때문이다. KBS는 방송법에 근거하여 설립 및 운영되고 있는 공영방송사인데, 본 연구에서 다루는 해당 기념은 국가 기념일(식)이라는 점에 비추어, 그 중계의 상징성과 대국민적 위상이 타 중계에 비해 더욱 확고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과거, 기억, 기념, 기념식 그리고 기념식 중계로 구체화되고 변화되는 과정을 재현의 관점에서 살펴봄과 동시에 이것이 문화적 실천 작용으로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는지 다루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 후에, 3.1운동 100주년 기념식 중계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 중계의 매체 구성적 특징에 초점을 두고 그 의미 작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 기념과 기념식 그리고 기념식 중계라는 재현 과정이 현재 우리에게 제시하는 시사점과 사회문화적 함의는 무엇인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 II. 기억, 기념식, 기념식 중계

### 1. 기억의 재현으로서 기념식

과거는 기억을 통해 여전히 현재 속에 존재한다. 기억은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방법이며, 더 나아가 현재의 구성원들에게 미래를 예견토록 한다. 중요한 것은 그 매개의 방식인데, 여기서 기억의 불투명성이 확인된다. 과거를 온전히 기억한다는 것은 애초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러한 이유로 인해 현재의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인식의 틀 속에서 기억이 작동될 수 밖에 없다. 집단 기억 개념을 논의한 모리스 알박스는 이

에 대해 기억의 범주와 조건으로서 사회적 틀로서 설명한 바 있다. 이렇게 보면, 기억은 반드시 재현의 문제를 수반하며,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개념으로 확장된다. 특히 여러 기억 행위들 중, 기념은 가장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이러한 재현으로서 기억,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실천으로서 기억의 문제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낸다.

기념이 재현이라 함은 무엇보다 정치적인 조건 속에서 과거를 기억하는 실천이라는 논의를 수반한다. 적어도 국가적 단위의 기념은 일종의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 의해 구성된다. 우선 수많은 과거의 사건들 중에서 기념할 만한 과거를 선별하며, 이는 법적이고 제도적인 절차를 통해 승인된다. 이후, 기념일이 제정되고 그에 따라 기념식이 거행되는데, 이는 해당 기념이 단지 인식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특별한 방식으로 현실에 드러나게끔 하는 제도적 실천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것이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해당 과거의 의미는 공유되며, 당대의 집단 기억을 구성 혹은 재구성하는 기제로 기능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기념식에 집중하여 보면, 기념은 기념식이라는 또 다른 재현으로 가시화되어야 그 현재적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즉 기념식은 기념을 위한 재현 의식(儀式)으로서, 기념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 그리고 기념의 내용을 조건 짓는 문화적 실천인 것이다.

재현 의식으로서 기념식은 관습화된 거행 절차를 통해 그 의미를 공고히 한다. 기념식은 명백한 주최자가 존재하며, 이들에 의해 계획되고 연출된다. 시간 및 공간에 대한 구획은 물론이며, 참여자들의 선정과 그들에 대한 소개 및 참여 방식, 공연 및 퍼레이드와 같은 프로그램의 구성 그리고 예행 연습 후 실제 거행되는 모든 과정은 공식적으로 승인되거나 혹은 암묵적으로 동의한 규칙을 따른다. 이와 관련하여, 코너톤은 기념식 그리고 직접 경험으로 수행되는 이러한 의례들이 모든 담론적 실천 과정에서 수반되어 나타나는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일종의 ‘안전 장치’로 이해될 수 있다고 논의한 바 있다.<sup>3)</sup> 이러한 주장이 의미하는 바는,

기념식이 몸에 체화된 기억 퍼포먼스라는 점을 통해 설명이 가능하다. 여타의 문화적 기억들 중, 기념식은 모든 참여자들로 하여금 동일한 시간과 공간에 머물게 하면서, 철저하게 계획된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그 거행의 의미를 몸에 각인토록 한다.<sup>4)</sup> 참여자들은 기념식 현장에서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개인 스스로를 인식하게 되며, 기념식이 강조하는 의미를 몸을 통해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기념식은 기념비나 기념관과 달리 항시적으로 기념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대개 1년에 한번 거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여자들에게 더욱 강렬한 시공간적 경험을 제공하게 된다.<sup>5)</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념식이 현장성을 바탕으로 그리고 몸을 통한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집단적인 상호작용은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그 외의 개인적이고 자유로운 행위들은 제한한다.<sup>6)</sup>

기념식의 거행 과정에서 해당 과거에 대한 의미를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과정은 기념사의 낭독에 있다. 기념사는 언어 재현적 형식을 취하면서 과거의 의미를 서술한다는 점에서 기억 서사로 이해될 수 있다. 기념식에서 기념사는 해당 기념 주최 측의 대표자가 낭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념사의 내용으로 직접적으로 제시되는 언어적 서술 뿐 만 아니라, 낭독자의 복장, 태도, 시선 그리고 낭독 중의 휴지(休止) 등과 같은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포함되는 기념사 낭독의 순간은 참여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따라서 기념사는 기념식을 통합체적 기호 체계로

3) Connerton, P., *How societies remember*,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p.102

4) 기념식의 참여자들은 모두 같이, ‘자리에 앉거나 일어나고, 경례하고, 묵념하고, 국가나 기념가를 제창하고, 박수치거나 환호하고, 슬퍼하고, 기념 무대와 퍼포먼스를 응시하고, 퇴장한다’. 이 모든 과정은 기념식이 기념하고자 하는 해당 과거에 대한 현재의 의미를 공고히 하고 공유하기 위한 수행의 일환이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념식은 절차를 통해 기념일로서의 위상을 박탈당하지 않는 이상, 반복적으로 거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시적이기도 하다.

6) 좀 더 비판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는 푸코가 제기하는 유순한 신체를 위한 퍼포먼스이자, 기념이 제시하는 의미에 부합되지 않는 언술과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감시의 장이기도 하다.

이해할 때, 기념식의 의미가 확고해지는 순간이자, 모든 참여자들의 감정이 고조되며, 일체화되는 순간이다. 아울러 기념사는 기념식이 종료된 이후에도 다양한 담론들과 결합되어 재생산되며, 그에 따른 담론적 실천을 수행한다.

결국 기념식의 의미는 기획된 국가 정체성의 생산 및 공표의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다양한 제도적 조건이 선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식이라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기념식의 정치성은 여전히 근대적 통치성을 담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만들어진 전통’<sup>7)</sup>의 시대이며, ‘상상의 공동체’<sup>8)</sup>의 시대로서 근대는 그 자체의 기호 작용을 위해 특별한 참조점을 수반하였다. 다시 말해, 근대는 근대적 가치와 근대적 상황의 질서 유지와 지속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그 ‘역사’ 속에서 그 원류나 출발점을 발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sup>9)</sup> 이 과정에서 기념식의 용도는 분명해지며, 그에 따른 권위가 부과되었다. 이러한 논의에 비추어, 기념식은 여전히 근대 민족 국가의 통치성이 이 시대에도 작동되는 형식이자, 공적 기억이라는 지배 담론이 공공 장소(기념식장)에서 재현되는 순간으로 이해될 수 있다.

## 2. 미디어 이벤트로서 기념식의 재현

기념식이 과거에 대한 기억의 재현이며 현재의 구성원들에게 그 의미를 공표하는 행위임은 분명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그 사회 축매제라는 역할이 미디어를 통해 진행된다. 비단 기념식 뿐 만 아니라, 스포츠 경기

---

7) Hobsbawm, E., *The Invention of Tradition*, 박지향 역, 『만들어진 전통』, 휴머니트스, 2004.

8) Anderson, B.,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Verso, 1991.

9) 이와 관련하여, 에드워드 쉴즈는 특정한 과거가 현재에 서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국민 국가의 건립 순간이 그러한 요건을 가진다고 논의한 바 있다. Shils, E., *Tradition*, 『전통』, 김병선·신현숙 공역, 민음사, 1992.

및 각종 행사 등과 같은 대규모 이벤트가 텔레비전에서 중계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며, 그 참여자 수도 실제 현장 관객보다 텔레비전의 시청자가 압도적으로 많다.<sup>10)</sup> 이러한 모습은 기념식을 미디어 이벤트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며, 텔레비전이 제시하고 있는 현대 사회의 새로운 의례적 역할로 논의될 수 있다.

미디어 이벤트라는 관점에서 볼 때, 기념식의 중계는 기존의 기념식과는 또 다른 기억의 재현 과정을 거친다. 우선 기념식이 기념이라는 기억의 재현인데 반해, 기념식 중계는 그것을 다시 재현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여기서 주목될 수 있는 것이 텔레비전 방송만의 특별한 재현 시스템인 중계(中繼)이다. 사전적 의미로 중계는 방송국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황을 방송국이 연결하여 방송하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기념식이 중계를 통해 재현되면 이는 또 다른 형태의 문화적 기억으로 재편되는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 미디어 이벤트에 대한 주요 권위자들인 다얀과 캐츠에 의하면, 미디어 이벤트는 경연, 정복, 대관식의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이들 중 기념식 중계는 대관식의 특성을 공유한다. 대관식은 실제 대관식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장례식이나 ‘영웅’의 통과 의례(결혼, 죽음, 임명 등)도 포함된다.<sup>11)</sup> 무엇보다 대관식 이벤트는 과거라는 시간과 전통이라는 가치가 중요하게 강조되며, 그에 따른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연속성을 확신하게 하고, 그 메시지는 전통을 따르는 것에 집중되고, 이를 통해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도출하여 사회적 갈등의 ‘휴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기념식과 궤를 같이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기념식 중계의 형식과 그 효과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sup>12)</sup>

10) Zillmann, D. & Vorderer, P., *Media Entertainment: The Psychology of Its Appeal*, Lawrence Erlbaum Associates, 2000, p.156.

11) Dayan, D. & Katz, E., *Media Events: The Live Broadcasting of History*, 곽현자 역, 『미디어 이벤트』, 한울, 2011, 53~87쪽.

12) ‘기호’의 관점에서 보면, 기념식 중계는 ‘내용’과 ‘형식’으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특정한 사회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본 절에서 그 ‘내용’을 다루지 않는 이유는 앞 절에서 기념식 중계의 내용이자 참조점으로 기념식에 대해 논의하였



첫 번째로 기념식의 중계는 텔레비전 방송의 주요한 형식 중 하나인 플로우/흐름(flow) 개념을 재고토록 한다. 즉 기념식 중계는 플로우를 침범하는 이벤트이지만, 그 자체는 여전히 플로우를 답습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텔레비전 방송은 철저하게 계획된 편성표와 편성 시간에 근거해 방송되지만, 기념식 중계는 그러한 정규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고 ‘독단적으로’ 플로우에 끼어든다. 이는 단지 해당 기념식 주최나 혹은 방송 주체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 양자의 합의와 공감 속에 근거하며, 이 과정 속에서 기념식의 일정 및 순서 등은 사전에 공유된다.<sup>13)</sup> 따라서 기념식 중계는 ‘투명한’ 중계가 아니라, 무엇을 촬영하고, 송출하는지와 같은 중계 과정이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제시된다. 이는 기념식 중계가 해당 기념의 의미를 생산하고 이를 구체적인 서사로 전달하는 특별한 수사적 장치를 통해 진행됨을 의미함과 동시에 플로우 개념이 방송 편성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중계 형식과도 관련됨을 의미한다. 즉 기념식 중계는 해당 기념이 기념 주체에 의해 프레임되고 있는 바를 적확(的確)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이를 위해 방송 중계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게 된다. 기념식 중계는 방송 관계자들(진행자, 카메라 촬영자, 편집자, 송출자 등)의 배치와 임무가 사전에 준비되며, 그 각자의 역할에 따른 진행 상황들이 플로우에 근거하여 해당 방송으로 실시간 중계되는 것이다.

여기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중계자는 진행자이다. 진행자는 엄밀하게 말해, 해당 중계 방송을 위해 혹은 실제 기념식과는 별도로 기념식 중계를 위해 드러나는 진행자와, 실제 기념식 거행에서의 사회자라는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하지만 이 둘 모두 기념식의 공식적인 의미를 설명함과 동시에 기념식의 원활한 흐름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다만

---

기 때문이다. 물론 기념식 중계의 형식이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본 절에서는 이를 형식적 조건 속에서 나타낼 수 있는 변화라고 가정하고자 한다.

13) 이것이 본 연구가 KBS 기념식 중계를 다루는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 공영방송사라는 KBS의 위상은 이러한 관계를 더욱 밀착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는 기념식을 논평하는 다른 배석자와 동석하면서 기념식을 조망하기도 하지만, 후자는 해당 기념식의 식순이나 좀 더 공식적인 흐름에 집중한다. 물론 기념식 중계의 시청자는 전자와 후자를 모두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기념식 거행에 참가하고 있는 관객들은 후자만을 인식하게 된다. 또한 기념식 중계에서 전자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시청자들이 후자를 진행자로 인식하도록 중계된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둘 모두 기념식 중계에서 유일한 나레이터로서 기념식에 직접적인 해석을 가하고 의미를 부여하며, 동시에 시청자가 시청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념식의 친교적 커뮤니케이터로 역할을 담당한다.

두 번째로 효과의 관점에서, 기념식 중계는 기념식의 수용 여건을 변화시킨다. 무엇보다 기념식 중계는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 본래의 장소에서 분리되어 제시되기 때문에 그러하다. 기념식 중계에서 본래의 기념식 장소는 일종의 방송 세트장이 되며, 기념식 그 자체는 프로그램이 되고, 텔레비전을 시청하게 되는 가정이 기념식의 관람 장소가 된다. 기념식 중계가 결정되면, 기념식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특히 지상파의 모든 방송국에서는 특별 편성을 통해 중계하기 때문에 시청자들의 입장에서는 기념식의 참여를 반강제적으로 강요당하고 암묵적으로 이에 동조토록 하는 상황이 된다. 이 과정에서 시청자들은 해당 기념에 대한 성찰적 입장을 가정 내에서 취하도록 강요받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텔레비전 시청은 더 이상 개인화되지 못하고, 공적인 경험으로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기념식 중계는 비록 기념식에 직접 참여하지 못했던 개인들로 하여금 다시금 국민 혹은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호명하는 기제가 되며, 그에 따른 집단 정체성을 재확인토록 한다.

기념식 중계의 효과는 수용의 맥락에서만 작동되는 것이 아니다. 기념식 중계는 생산의 맥락에서, 기념식 주체인 국가와 중계 주체인 방송사에도 영향을 미친다. 기념식 주체에게는 기념식 중계를 통해 기념식 공간에서만 한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국가 및 권력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그리고 대규모적으로 공식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기념식 중계는 국가의 정책적 홍보로 활용될 뿐 만 아니라, 여론의 (재)구성을 위한 통로가 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기념식 중계자는 자신들의 저널리즘의 규칙을 성찰토록 하며, 사회적 통합의 역할을 수행하는 대가로 그 지위와 정당성을 획득하게 된다.<sup>14)</sup> 이는 기념식 중계가 단순히 방송이라는 공공재적 특성에 의한 반강제적 편성이라기보다는, 기념식이 가지는 의미를 해당 방송국들도 인식하고 있기에 이를 통한 방송사의 대외적인 위상을 재확인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의도에 기인한다는 해석으로 이어진다. 결국 기념식 중계는 사전에 기념식 주체와 논의되어 중계되는 것임이 자명하지만, 중계 주체는 기념식 중계를 통해 공적 기억의 전달자가 된다는 위상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가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게 된다.

종합하면, 기념식 중계는 미디어 이벤트의 한 형태로서, 기억의 재현인 기념식의 사회적 의미를 더욱 확장시키는 문화적 실천으로 이해될 수 있다. 무엇보다 기념식 중계는 매스 미디어의 활용을 통해 기념식이 가지는 한정적 제반 조건들을 극복함과 동시에 기념의 가치를 대중적으로 공고히 하는 현대의 문화적 기억의 일환이기도 하다. 특히 기념식이 근대적 통치성과 맞닿아 있다고 앞서 논의한 것과 비교하여, 기념식 중계는 후기 자본주의의 논리 혹은 포스트모던적 통치성의 논리가 함유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각 개인의 가정에서 ‘불거리’로 치환된 기념식이 단지 ‘스타일’의 여가 활동이나 방송 프로그램으로서만 의미를 획득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기념식 중계는 현대 사회의 도처에서 기능하고 있는 보편적 소통 체계로서 미디어의 매개가 일상의 문화정치로 작동하는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즉 기념식 중계는 미디어에 의한 재부족화(retribalization)<sup>15)</sup>가 집단 기억의 유지와 전통적인 정

14) Dayan, D. & Katz, E., Op. cit., p.257.

15) McLuhan, H. M., *Understanding media : the extensions of man*, 『미디어의 이해』, 박정규 역, 커뮤니케이션북스, 1999.

체성 및 연대 의식의 강화라는 형태로 변용되는 나타나는 문화적 실천인 것이다.

### Ⅲ. 연구 방법론적 설정

본 연구의 직접적인 연구 대상은 기념식 중계이지만 이는 결국 기념식에 대한 논의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기념식은 기념식 중계에 선행한다. 중언부언하건데, 이는 기념식 중계가 없는 기념식은 있을지라도, 기념식 없는 기념식 중계는 있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기념식 중계는 기념식이라는 조건에 종속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념식 중계는 지시 대상이 없는 시물라시옹이 아니며, 기념식을 참조하는 명시적인 기호이다. 두 번째로 기념식 중계는 기념식 주최자들과 사전에 합의 및 조정 과정을 거친 후에 진행되는 점에서 기념식이라는 의미 구성체의 대리자로서 의의를 가진다. 기념식은 사전에 계획된 시간과 공간에서 진행되는 ‘이벤트’로서, 기념식 시나리오의 중계자들과 사전에 공유된다. 따라서 중계자들이 중계해야 할 실황의 시공간적 범위는 이미 조건 지워지게 되며, 기념식의 계획된 ‘틀’은 우선적으로 기념식 중계에 반영된다. 세 번째로 여타의 행사와 달리 기념식은 텍스트로서 완결된 구성적 특성을 가진다는 것이 기념식 중계의 조건을 한정한다. 네 번째로 위의 세 가지 이유로 인해, 비록 기념식 중계만을 다룬다 하여도 그것은 기념식을 자체를 떼어놓고 다룰 수는 없다. 결국 기념식 중계에 대한 논의는 기념식 자체에 대한 의미가 고려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념식 중계가 중계만의 매체적 특성 혹은 담화적 차원에서 기념식을 조직화하는 것은 자명하다. 이는 실황과 그것의 중계에서 나타나는 차이로서, 중계는 실황에 ‘의미 있는’ 주석을 더하는 실천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중계는 ‘실황+매체 구성적 실

천'으로 도식화 될 수 있을 것이다.<sup>16)</sup> 이는 비록 기념식이 기념식 중계에 선행한다 할 지라도, 그것이 현실 세계에 모습을 드러내는 방식에서 구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기념식 중계를 통해 기념식을 다루되, 기념식 중계 과정에서 드러나는 영상 재현적 양상을 '거리두기'를 통해 바라보며, 기념식과 기념식 중계의 교차점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기념식의 메시지는 기념사에서 '결정'된다고 앞서 언급한 바 있다. 이렇게 보면, 기념식 중계는 기념사를 위한 의식인 기념식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기념식이 중계로 재조직되는 과정은 기념식을 특별하게 경험할 수 있게 하며, 그에 따른 부가된 의미를 생성한다. 이는 기념사를 중심으로 하는 1919년 기념식의 메시지나 가치와는 별도로 기념식 중계만이 가지는 의미론적 차원의 논의가 수반됨을 뜻한다.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를 몽타주 기억 개념을 통해 다루고자 한다. 몽타주 기억은 영상 재현을 통해 구성된 기억의 새로운 형태로서 영상 기억을 의미하는데, 이는 영상 재현이라는 실천만이 가지는 특별한 수행성을 강조하며, 그에 따른 기억의 구조적 특성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내포하는 개념이다. 즉 몽타주 기억은 이미지들의 선별, 배치 및 연결, 전환 등과 같은 몽타주 과정이 시각 효과를 넘어서, 기억의 의미를 새롭게 창출하는 기억의 의미화의 과정으로 다뤄질 수 있음을 뜻한다.<sup>17)</sup>

16) 이러한 도식화가 가능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 근거한다. 우선 중계자들이 얻을 수 있는 자율성은 실황의 범위 내에서 카메라의 위치와 개수의 선택, 앵글과 피사체에 따른 송출 화면의 구성, 자막과 그래픽이 추가, 현장 진행(자)의 추가 유무 등을 통해 확보된다. 이러한 구성적 자율성으로 인해, 기념식 중계에 한정하여 보면, 오프닝 및 엔딩 구성을 통해 담화적 시간은 기념식 실황보다 연장될 수 있으며, '응시'의 권한 또한 중계자들에게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것이 기념식 실황에 더해진 기념식 중계의 매체 구성적 실천이다.

17) 태지호, 「텔레비전 다큐멘터리를 통한 사회적 기억제도로서의 영상 재현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26, 한국방송학회, 2012, 461쪽. 이와 관련하여, 몽타주 기억은 영화, 방송콘텐츠 뿐 만 아니라, 박물관 등과 같은 일련의 영상 재현을 통해 과거가 선택되고, 편집되고, 구성되는 양상에 대한 일종의 영상 기억을 의미한다. 즉 몽타주 기억은 영상 재현을 통해 제시되는 기억술이며, 기억의 물질성에 주목함과 동시에 몽타주라

이에 비추어 보면, 기념식 중계 또한 몽타주 기억의 한 사례이며, 이는 기념과 기념식 그 자체가 본래 지시하는 의미와 더불어 1919년에 대한 의미를 재구성하는 가능성을 가진다. 이러한 전제 속에서, 본 연구는 기념사가 제시하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하여, 기념식의 의미가 기념식 중계를 통해 어떻게 재구조화되는가를 살펴보도록 한다.

#### IV. 송고와 유희의 이중주로서 1919년 기념식 중계

##### 1. 과거 청산과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송고와 유희

본 절에서는 3.1운동 100주년 기념식 중계(이하 3.1운동 기념식)를 다룬다. ‘과거 청산과 혁신적 포용국가’는 3.1절 기념사의 주된 메시지이며, 기념식 중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표 1] 3.1운동 기념식 중계의 통사론적 분석

타임 테이블	시퀀스 및 주요 내용	영상 조직화	기타/특징
00:00 ~ 01:14	중계 시작 및 스튜디오 소개 : 1919년의 의미 부여	기념식 현장 특설 스튜디오	오프닝 멘트
~02:19	광화문 광장의 의미	기념식장 영상	대답자 소개
~04:39	다양한 태극기들의 의미 설명, 기념식 내용 및 식순 설명	만세 행렬 영상	음향 상태 불량
~06:57	다양한 태극기들의 의미 부여 설명	만세 행렬 영상, 각각의 태극기 화면	음향 상태 불량 사과 멘트, 김구 선생 태극기의 상세 소개
~09:59	행사 시작 20분 전 알림, 태극기 반복 설명	3.1만세 운동 재연 행렬	‘이제 행사 시간 약 20분 남았습니다’

는 메커니즘을 통해 과거가 스펙터클의 기억으로 현시화 될 때, 기억의 문제를 정서적, 미학적, 그리고 정치적인 관점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한다.

~14:52	3.1운동의 재평가 연구 현황 소개,	진행자와 현장 행 렬의 화면 분할, 유관순 사진 등장	
~16:04	진관사 태극기 소개	만세 행렬 영상	‘국민이 이끌 나라 대한민 국 만세, 함께 만드는 미 래, 함께 만든 100년’ 표어
~18:04	기념식의 의미 소개, 유관 순 건국 훈장 대한민국장 수여 소개 및 독립운동가 후손 예우 수준 강화	만세 행렬 영상	대담자의 자료 정리 화면 전환
~19:14	대통령 동선 소개	기념식장 화면	진행자의 화면 설명/안내
~20:42	100주년 기념 사업 소개	만세 행렬 영상	
~22:34	기념식 내용 소개, 대통령 동선 소개	만세 행렬 영상	
~23:50	대통령 동선 소개	대통령 출발 영상	‘네 지금 막 문재인 대통 령이 청와대를 출발한 모 습입니다’
~25:29	진관사 태극기 다시 강조	대통령 이동 영상	
~27:39	대통령, 국립고궁박물관 도착	대통령 이동 영상	
~29:44	대통령과 국민대표 33인과 인사, 국민대표 33인 선정 방법	대통령과 국민대 표 33인 인사 영상	
~33:14	대통령과 국민대표 33인 입장	대통령과 국민대 표 33인 입장	진행자의 영상 설명 및 현 장 사회자의 멘트 시작
~34:17	기념식 시작	현장 사회자 영상	‘일터와 가정에서도 tv로 함 께 하는 시청자 많은 줄 압 니다. 기념식 시작합니다.’
~45:44	독립선언서 낭독	사전 녹화된 각 계층의 현장 영상 낭독 영상에 이어 현장 낭독 영상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51:04	국민의례,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태극기 영상	해외 유공자 후손들 및 독 립운동가 배출학교의 연 합 합창단

~52:34	순국 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묵념 영상	
~59:49	현정 공연	경복궁 협연 영상	피아니스트와 첼리스트 협연 및 윤봉길 종손 배우의 ‘심훈 선생’ 편지 낭독
~1:00:14	현정 공연 종료	기념식장 영상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1:04:29	독립유공자 포상	수여 영상	‘특히 올해는 3.1절 100주년을 맞이하여, 특별히 3.1운동의 상징이신 유관순 열사께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수여하게 됩니다’
~1:28:34	기념사	기념사 영상	
~1:31:39	만세 삼창 준비	천안 독립기념관 현장 연결 영상	5G 기술 강조, 다원 중계 진행
~1:34:03	전국 동시 타종 및 만세 삼창	태극기 영상, 전국 만세 영상, 공군 비행단 영상	‘모두 하늘을 바라봐 주십시오’
~1:37:05	3.1절 노래 제창	제창 영상 및 가사 자막	
~1:41:50	가수 ‘비와이’ 공연	공연 중계	독립운동가 이미지(만화 형식) 삽입, 안무 및 가수 영상
~1:44:14	바이올린 독주	공연 중계	대한 독립 태극기 영상, 안중근 의사 나레이션
~1:46:59	‘아리랑’ 공연	공연 중계	차분한 곡조로 편곡
~1:53:29	‘다함께 아리랑’, ‘아름다운 강산’ 공연, 비행단 공연	공연 중계	공연 참가가 모두 무대 입장(어린이, 군무단, 코러스 등), 흥겨운 곡조, 비행단 공연은 영상에 나타나지 않음.
~1:55:04	독립의 햇불 출정식	햇불 전달 영상	
~1:55:44	기념식 종료	대통령 내외 퇴장 영상	‘모든 행사가 마쳤습니다’
~1:58:55	중계 마무리 및 기념식 논평	기념식 현장 특설 스튜디오	마무리 멘트



무엇보다 몽타주 기억의 관점에서 3.1운동 기념식 중계에서 드러나는 가장 큰 특징은 기념식 현장에 특설 스튜디오가 마련되어 있었다는 점에 있다. 이를 통해 실제 중계는 방송국에서 중계와 송출 방식을 이원화 한 것이지만, 형식적으로는 특설 스튜디오에서 기념식을 중계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 특설 스튜디오의 진행자와 대담자는 기념 및 기념식에 대한 설명과 의의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념식장의 준비 과정 및 기념식장 주변 상황 또한 중계하였다. 실제 기념식 거행의 소요 시간은 대략 1시간 21분 정도였는데, 기념식 시작 전부터 특설 스튜디오의 대담이 약 34분 정도 진행되었고, 기념식 종료 후에도 약 3분 정도의 기념식 마무리 논평이 이어졌었다.

이러한 중계 방식은 이후 논의할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식 중계(이하 임정 기념식 중계)보다 현장성이 확연히 드러나는 모습을 보인다(표 3. 참조). 이는 중계 도중, 음향 상태가 불량한 모습이 나타나거나 대통령의 이동 상황 중계, 기념식 시작 시간 알림 그리고 기념식장의 현장 모습을 특설 스튜디오에서 실시간으로 설명하는 사례에서 특히 그러하다. 가령, 중계 영상 17:25 즈음에 진행자가 대담자와 질문과 답변을 이어나가는 과정에서, 대담자가 문서 자료를 찾으며 다소 당황하는 모습에 대해, 영상은 기념식장 준비 상황으로 카메라를 옮기고 송출 화면을 대신하였다.

특설 스튜디오의 유무, 다시 말해 현장 진행자와 사회자가 모두 드러나는 3.1운동 기념식 중계와 사회자만이 존재하는 임정 기념식 중계의 차이는 단지 현장성의 차이로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는 중계 영상의 서술 방식의 차이이며, 더욱 근본적으로 서사의 의미 작용 방식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의미한다. 우선 기념식 중계 ‘영상’ 또한 디제시스 세계로 논의될 수 있다면, 진행자와 사회자는 해당 허구 세계의 서술자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관련하여, 3.1운동 기념식의 내레이터는 진행자와 사회자이다. 이 경우, 중계 방송 상 겹으로 드러나는 내

레이터는 스튜디오 진행자이며, 사회자는 일종의 등장 인물이 된다. 따라서 진행자는 특별한 위상을 가지는 내레이터로서 기념식의 현재 상황을 묘사 및 설명하며, 이를 통해 기념식 중계를 가시적으로 조직화한다. 하지만 진행자의 역할에 대해 기념식의 현장 참석자들은 알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다시 말해, 이는 중계 시청자들에게만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기념식 중계의 논디제시스적(non-diegesis) 성격을 드러내는 상황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것은 단지 화면의 구성이나 배치 등과 같은 미학이나 표현의 측면에서만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3.1운동의 기념을 내용적 측면에서 한정한다는 점에서 기념식 중계자라는 ‘작가’의 구체적인 서술행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실제로, 3.1운동 기념식 중계의 진행자는 ‘1919년의 위상 및 3.1운동에 관한 연구 현황’, ‘광화문 광장의 의미’, ‘기념식장에 계양된 태극기에 대한 설명’, ‘건국 훈장의 수여의 의미’, ‘국민대표 33인의 선정 방법’, ‘100주년 기념식의 의의’ 등과 같이, 3.1운동 기념식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와 관련 정보의 제공하였다. 다음 표는 3.1운동 기념식 중계에서 설명되는 진행자와 대담자간의 주요 대담을 요약한 것이다.

[표 2] 3.1운동 기념식 중계의 대담

	진행자 질문	대담자 답변
기념식 시작 전	3.1운동 기념식을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주권이 국민에 있다는 상징의 공간이다.
	3.1만세 운동 재연 행렬에 보이는 태극기들은 무엇인가?	광복군 서명문 태극기, 뉴욕 아스토리아 호텔 이승만 태극기, 김구 선언문 태극기이다.
	기념식장 주변에 보이는 태극기들은 무엇인가?	정부청사는 현재의 태극기, 외교부 청사에는 김구 서명문 태극기, 교보빌딩에는 남산사 자수 태극기, 현대해상에는 진관사 태극기, 세종문화회관에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태극기가 걸려있다.

	3.1운동을 민주주의적 시각에서 재평가하는 연구의 현황은 어떠한가?	1910년대에만 해도 독립운동은 선각자의 역할이었지만, 3.1운동을 통해서 대중이 이끌어가고 참여하는 사회운동이 되었다.
	기념식장에 계양되는 진관사 태극기는 무엇인가?	진관사 태극기는 3.1운동 당시 가장 널리 쓰인 태극기이다.
	이번 기념식은 단순한 기념식이 아니라, 역사의 오류를 바로잡고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의미도 있다.	독립운동가의 후손을 배려하고자 한다. 이들 상당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훈처에서 준비하고 있다. 후손들의 당연한 의무이다.
	유관순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수여된다.	의미가 적지 않다. 공적이 낮게 평가된 독립장에서 대한민국장으로 높이기로 하였다. 상징적 조치이다.
	경찰의장대도 기념식에 참여하고 있다.	대한민국경찰의 뿌리를 임시정부에서 찾는 것이다. 임시정부의 경무국장을 지낸 백범 김구를 특별히 기리는 의미가 있다.
	대통령이 국민대표 33인과 인사중이다. 33명은 과거와 미래를 의미한다. 어떻게 선정되었나?	애국지사, 위안부 피해자, 강제동원 피해자, 6.25전사자 유가족, 월남 참전용사, 이산가족, 민주화 운동 유가족 등 우리 국민 모두를 대표한다. 모두 진관사 태극기를 들고 있다.
기념식 종료 후	오늘 기념식의 메시지를 정리하자.	첫 번째는 친일잔재를 청산하고 독립운동을 제대로 예우하는 것이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정의로운 나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다. 두 번째는 신한반도 체제로 전환해서 통일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신한반도 체제는 동북아의 평화번영의 토대는 물론, 아시아의 번영과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새로운 100년은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3.1운동은 현재진행형이다. 안으로는 통합이고 밖으로는 평화 번영을 이룰 때 우리는 진정한 독립을 완성할 수 있다.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률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 이념을 계승한다고 헌법전문은 밝히고 있다.	바로 어제 2차북미정상회담 결과가 발표되었다.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지만, 상호 이해와 신뢰를 북미간에 높였다고 볼 수 있다. 더 높은 합의로 가는 과정이라고

	<p>3.1운동 그날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해 나아가야 한다. 과거 3.1절 기념사의 뼈대가 되었던 것이 대일본 메시지라면, 오늘은 한반도 운명의 주인인 우리의 역할이 대통령의 연설에서 강조되었다. 요즘 한반도 정세와 관련이 있다.</p>	<p>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앞으로 우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한반도 평화의 운전자, 중재자 나아가서 촉진자로서의 더욱 적극적인 역할이 요청된다고 볼 수 있다.</p>
	<p>오늘 기념사에서 그 밖에도 인상적이었던 메시지는 어떤 것이 있는가?</p>	<p>3.1운동에서 민주화운동, 촛불혁명까지 이어진 평범한 사람들의 도전에 첫 출발점이 3.1운동이었다는 점이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의 도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아가야 한다. 평범한 사람이 주인공 나라가 다름 아닌 민주공화국이다. 지난 100년이 민주공화국을 만들어 온 나라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100년은 이런 민주공화국을 더욱 성숙시키는 100년이 되길 바란다.</p>

우선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의 주된 의미가 “‘민족’이 주체가 되어, ‘친일청산’ 및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신한반도체제’를 이루고, 아울러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3.1운동’은 여전히 ‘진행중’”이라는 것인데,<sup>18)</sup> 3.1운동 기념식 중계는 대담을 통해 이를 설명하고 요약한다. 대담은 기념식 전과 후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기념식 전 대담은 ‘태극기’, ‘김구’, ‘유관순’을 중심으로 한 기념식에 대한 배경 설명을 중심으로, 기념식 후 대담은 기념사에 대한 평가로 이어졌다. ‘유관순’은 기념사에서도 강조되었듯이, 3.1운동의 대중적 상징으로 표상되며, 대담에서도 공적 격상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태극기’에 대한 설명은 기념식에 곳곳에 계양되고, 이를 기념식 중계에서도 반복적으로 영상으로 송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담을 통해 제시된 일종의 부가 정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김구’의 강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강조하는 현재 정권의 역사 인식과 무관하지 않지

18) 태지호, 앞의 글(2020), 226쪽.

만, 기념사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하지만 ‘김구’는 2019년 대통령 신년사에서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언급하면서 이미 인용된 바 있으며, 기념식에서의 ‘경찰의장대’의 등장과 대담에서의 ‘김구’의 강조는 3.1운동 기념과 맞닿아 있다.

무엇보다 대담은 3.1운동의 100주년을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적 흐름의 중심에 위치시키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와 동시에 대담 또한 ‘사회운동’, ‘보훈’, ‘대한민국의 역할’, ‘민주공화국의 건국과 성숙’ 등의 실현을 국민에게 ‘요구’하고 국민의 ‘의무’로 제시하는 문화적 구속의 논리를 드러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기념사에서도 동시에 나타나는 기념의 신화적이고 합리적인 논리임과 동시에, 기념식 중계가 대담을 통해 기념의 의미를 설명 및 평가하고 그에 따른 담론을 생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념식 중계사의 저널리즘적 위상을 강화시키기도 한다. 즉 기념식 중계사는 정부의 정책과 방향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대신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비판적이거나 혹은 견제적인 차원이 아니며, 기념식 주최자가 사회통합의 수단으로 3.1운동의 기념을 정부의 정책 홍보로 활용하는 것을 정당화하며 그 의지를 대리 표명해주는 것에 한정된다.

3.1운동 기념식의 본격적인 시작은 현장 사회자가 중계 영상에 등장하면서이다. 그 이전에 있었던 대통령과 국민대표 33인과의 만남은 중계 영상에서는 드러나지만, 기념식 현장에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이 또한 논디제시스적이다. 기념식 참석자들은 대통령과 국민대표 33인의 입장을 통해 기념식이 곧 시작됨을 알 수 있다. 이는 기념식 중계가 시청자들에게만 제공하는 기념의 기호이자 기념식 중계가 기념식에 대한 응시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상황으로 이해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후 곧 현장 사회자의 공식적인 기념식 시작 멘트가 이어지는데, 여기서 사회자는 텔레비전 시청자를 직접적으로 언급한다. 이는 기념식이 중계되고 있음을 참석자에게 알림과 동시에 시청자를 기념식 참석자로 ‘호

명'하는 행위이다.

독립선언서의 낭독은 사전 녹화된 '국민 모두'의 각 문장별 낭독 영상과 더불어 현장 낭독이 이어지도록 편집되어 중계된다. 독립선언서 낭독은 10분 이상 진행되었는데, 이는 기념사를 제외하고 기념식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된 프로그램이었던 점에서 그 재연의 위상을 드러낸다. 이후, 국민의례와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이어진다.

헌정 공연은 기념식장이 아니라 경복궁에서, 피아니스트와 첼리스트의 협연 그리고 윤봉길 종손 배우의 '심훈 선생' 편지 낭독을 통해 매우 엄숙하게 이어진다. 여기서 현장 참석자들은 이를 현장 스크린을 통해 관람하지만, 시청자들은 별도의 송출 영상을 통해 중계된 공연을 관람하게 된다. 이 과정은 별도의 편집이 없었고, 현장의 무대 배치 등과 같은 준비 과정이 모두 중계되면서 기념식의 실시간성과 현장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이는 기념사 이후에 진행된 전국 동시 타종 행사를 위한 전국 주요 지역의 현장을 연결 과정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연출되었다. 특히 천안 독립기념관의 현장 연결 시, 사회자는 5G 실시간 중계 생방송을 언급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세 삼창 현장을 연결하고 있는 다원 중계의 현장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어진 참여자의 인터뷰가 동시에 연결되어 중계되는 과정에서, 사회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길어지자, 사회자가 급히 이를 중단하고 다음에 계획된 타종 행사로 진행하였다. 이는 '초' 단위로 계획된 기념식이 현장의 의도치 못한 조건과 충돌되면서, 오히려 실시간성과 현장성이 더욱 명백하게 드러난 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다.

대통령의 기념사 낭독은 총 39개의 자막과 함께 중계되었다. 여기서 화면 자막은 실제 낭독보다 다소 빠르게 화면에 제시되었다. 다시 말해, 이는 음성(낭독)보다 자막이 먼저 제시됨으로서, 실제 낭독이 어떤 내용으로 전개되는지에 대해 미리 알 수 있도록 구성되었음을 뜻한다. 이러

한 시간적 차이는 이후에 다룰 임정 기념식 중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자막의 송출 방식은 기념식 주최측과 중계사가 기념사를 사전에 공유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며, 기념식 중계가 사전에 승인되고 조정되는 과정이 수반됨을 다시금 확인시켜준다. 또한 기념사에서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 경쟁 세력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도구로 빨갱이란 말이 사용되고 있고, 변형된 색깔론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라는 담화가 진행될 때, 중계 영상은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는 여야대표 및 정당 관계자들을 송출함으로써 1919년을 둘러싸고 나타나고 있는 현재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구성 방식을 취했다. 동시에 이는 시청자들에게 그러한 현재의 갈등 양상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하고, 기념식을 통해 이를 극복할 것을 요구하는 수행적 구성이었다.

이후의 중계는 3.1절 노래 제창, 가수 ‘비와이’의 공연, 바이올린 독주와 군무 공연, 아리랑 공연, 가수 ‘인순이’ 공연의 순서로 이어진다. 아리랑 공연을 제외한 모든 공연은 그간의 엄숙하고 경건한 기념식의 분위기를 유희적이고 환희에 찬 상황으로 변화토록 구성되었다. 아리랑 공연은 영화 ‘항거:유관순 이야기’의 출연진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대담, 유공자 포상, 기념사에도 반복적으로 강조되었던 유관순이 해당 공연에서도 재현됨으로서, 유관순은 1919년에 대한 대중 기억과 기념식이라는 공적 기억의 중심에 있는 상징임과 동시에 기억은 상호 매개적 관계를 통해 구성됨이 재확인된다.

기념식의 마지막 행사인 독립의 횃불 출정식은 3월 1일 이후 42일 동안 전국을 돌며, 100곳에서 횃불을 밝히고 4월 11에 임시정부 수립일에 서울로 돌아오는 전국 릴레이 만세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애국 지사가 대통령에게 횃불을 전달하고 대통령은 청년대표단에게 이를 다시금 전달하는 연출이었다. 이를 3.1운동 기념식 마지막에 위치시킨 것은 이후에 거행될 임정 기념식과의 연계성 및 1919년 기념 수행의 통합성을 의미한다.

## 2. 임시정부의 계승과 더 좋은 대한민국을 위한 숭고와 유희

본 절에서는 임정 기념식 중계를 다룬다. ‘임시정부의 계승과 더 좋은 대한민국을 위한 숭고와 유희’는 임시정부 기념사의 주된 메시지이며, 기념식 중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앞서 다룬 3.1운동 기념식 중계와 마찬가지로 이 또한 몽타주 기억으로 제시되지만, 이는 좀 더 완결되고 자기 충족적인 영상 재현의 특성을 보인다.

[표 3]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식 중계의 통사론적 분석

타임 테이블	시퀀스 및 주요 내용	영상 조직화	기타/ 특징
00:00~00:40	인트로 미니 다큐멘터리	다큐멘터리 영상 전체 화면	별도 다큐멘터리 ‘대한민국을 세우다’
~1:09	기념식 준비	기념식 타이틀 및 기념식 전경 영상	사회자 등장
~1:54	사회자 등장	사회자 영상	오프닝 멘트
~2:54	독립의 햇불 점화	햇불 부대 등장 및 점화 영상	
~3:30	기념식 시작	햇불 부대 및 군악대 영상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6:43	기념공연 1막 ‘국민이 세운 나라’	공연 영상	관람객석으로 들어가서 공연
~7:35	국기에 대한 경례	경례 영상	공연자가 ‘국기에 대한 경례’ 요청
~11:29	애국가 제창	애국가 제창 영상, 태극기 영상	공연자가 ‘애국가 제창’ 요청
~12:36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	묵념 영상	공연자가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 제안
~15:59	대한민국 임시헌장 낭독	낭독 영상, 자막	사회자 재등장, 장엄한 분위기
~16:29	기념공연 2막 소개	소개 영상	‘지금 시작합니다’
~21:29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꿈	임시정부 요인 몽타주 영상 및 내레이터 현장 영상	다큐멘터리 형식, ‘민주공화국’ 스크린 자막으로 마무리



~31:44	뮤지컬 신흥무관학교	공연 영상 및 스크린 멀티 영상	
~35:39	독수리 작전 퍼포먼스	군무 영상	
~38:47	임시정부 요인 환국	임시정부 요인 및 후손 무대 및 객석 등장 영상	여의도 착륙 영상, 실제 대형 비행기 등장, 불꽃쇼, 사회자의 환국 상황 및 공연 설명
~50:49	기념사	기념사 영상	
~52:37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 건립 소개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 건립 소개 영상	별도 다큐멘터리(광복절 72주년 경축식의 문재인 대통령 영상도 삽입)
~57:59	문화예술 공연 ‘하현우’, ‘국립합창단’	공연 영상 및 미리 제작된 영상 몽타주	사회자의 소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피켓 및 스크린 화면
~1:02:44	문화예술 공연 ‘국립합창단’	공연 및 관객 동참 영상	‘우리는 대한의 희망이다’ 스크린 화면
~1:02:51	기념식 종료	기념식 시작 및 준비 영상	

우선 임정 기념식 중계는 3.1운동 기념식 중계와 달리 별도의 스튜디오가 없었기 때문에, 기념식 중계의 내레이터는 기념식 사회자가 대신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기념식 거행이 마무리되면 중계 방송도 동시에 종료되었다. 이 과정에서 사회자는 기념식 중계의 디제시스 영역에 있는 등장 인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자의 역할은 앞서 다룬 3.1운동 기념식에서 특히 그러하였는데, 여기서 사회자는 진행자와 엄밀하게 분리되어 기념식 자체의 내레이터로서 혹은 기념식 중계의 등장 인물로서만 역할을 담당했다. 하지만, 임정 기념식 중계는 진행자가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회자가 등장 인물이기도 하지만, 기념식 중계의 진행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사회자는 기념식 중계 영상(기념식 외부)의 시청자와 기념식 현장(기념식 내부)의 참석자를 매개하는 역할을 동시에 담당하였기 때문에, 기념식 실황과 중계 양단에서 사회자의 행동과 언행은 주목되었다.

다만 기념식 중계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임정 기념식 중계는 기념식 현장 중계 방송 이전에, ‘대한민국을 세우다’라는 별도의 다큐멘터리 영상을 삽입하여 인트로 시퀀스로 활용하고 있었다. 이는 임정 기념식 중계에서 두드러지는 논디제시스적 특징이다. 이와 더불어 기념식 중계 중간에도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 건립’ 다큐멘터리가 송출되는데, 이 두 개의 영상은 중계 화면 전체를 채우는, 다시 말해 텔레비전 시청자의 입장에서 보면, 기념식 실황 영상이 아닌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구성은 기념식 현장의 참여자들이 해당 영상을 인식하는 방식과 차이가 있는 것이며, 기념식 중계가 단지 실황을 그대로 송출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들의 관람 환경을 전제로 한 특별한 방식의 서술임을 알게 해 준다.

사회자의 등장과 함께, 3.1운동 기념식의 마지막 구성이었던 독립의 횃불 출정식 이후, 42일간의 전국 순회 행사를 마치고 돌아온 횃불 점화를 통해 기념식이 시작된다. 점화 및 군악대의 연주와 불꽃 쇼 등으로 제시된 화려한 무대 연출 이후, 사회자는 기념식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다.

공식적으로 ‘기념공연 1막’으로 명명된 ‘국민이 세운 나라’ 공연은 일종의 참여 연극이다. 유관순을 연상시키는 복장을 통한 소녀의 ‘만세’로부터 시작되는 해당 공연은, 무대와 관객석이 구분되지 않으며, 출연진들도 무대에서 뿐 만 아니라, 객석 곳곳에서 등장하여, ‘만세운동’을 재연한다. 매우 격양된 분위기를 연출하는 재연 공연의 배우는 이후,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의 순서까지 ‘직접 제안’하면서, 사회자를 대신함과 동시에 기념식 참석자들을 식순에 참여시킨다. 이는 3.1운동 기념식과 비교하면 기존 기념식의 관습에서 벗어난 구성이다. 즉 기념식의 내용으로 제시된 연극적 재현 속에 기념식의 내용과 그 의례적 형식이 다시금 드러나게 함으로서, 기념식 참석자들로 하여금 연극 공연은 기념식의 일부로 구성된 허구적 연출이

아니라 그 자체가 기념식임을 인식시킨다.

이후 사회자가 다시 등장하고, 대한민국 임시현장 낭독이 광복회장과 대한민국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서포터즈와 함께 이어졌다. 현장 내용은 자막으로 제시되었고, 낭독 내내 장엄한 분위기의 배경 음악이 삽입되었다.

‘기념공연 2막’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꿈’, ‘뮤지컬 신흥무관학교’, ‘독수리 작전 퍼포먼스’, ‘임시정부요인 환국’이었다. 이들 공연은 공통적으로 기념식장 스크린과 무대 위 배우들의 퍼포먼스 상황이 교차되도록 구성되었다. 이러한 극적 연출의 분위기는 ‘임시정부요인 환국’에서 실제 대형 비행기(C-47 수송기)가 무대 뒤에서 등장함과 동시에 임시정부요인 및 후손들이 입장하면서 고조된다. 이는 광복군이 1945년 8월 18일에 여의도에 환국한 상황을 재연한 것으로, 기념공연 2막의 마무리이자 기념식 서사의 의미를 확고히 하는 연출이다. 즉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꿈’으로부터 시작된 영웅 서사의 시작은 ‘뮤지컬 신흥무관학교’, ‘독수리 작전 퍼포먼스’를 통해 영웅의 시련과 고난으로 이어지고, 환국은 영웅의 귀환이라는 의미를 획득하기 때문이다. 다시금 등장한 사회자는 해당 재연을 통한 기념이 가지는 의미를 설명하는데, 이는 3.1절 기념식 중계에서 진행자와 대담자가 제시한 기념식의 논평 상황과 유사한 자격을 취한 것으로 해석된다. 즉 임정 기념식에서 대체로 식순 소개 및 진행을 도맡았던 사회자는 유일하게 해당 상황에서 이에 대한 배경과 의의를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비롯된다. 엄밀히 말해, 1945년 8월 18일에 여의도에 환국한 요인들은 광복군 대원들과 미군 OSS 부대원들이었으며, 김구, 김규식 등 임시정부 요인들은 1945년 11월 23일에 김포공항을 통해 환국하였다. 그리고 두 번에 걸친 환국은 당시의 국내·외 정치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공식적으로’ 환영받지 못하였고, 대중들이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도 없었다. 하지만 본 기념식에서는 이를 ‘대관식’과 같이 화려하고 성대하게 재연함과 동시에 영웅의 귀환이라는 서사를 통해 그 현재적 의미를

새롭게 공고히 하고 있는 것이다.

이후, 국무총리의 기념사가 이어지는데, 총 9개의 자막으로 중계되었으며, 이는 3.1절 기념사와 비교하여, 시각 정보보다는 음성(낭독)에 집중토록 하였다.<sup>19)</sup> 관련하여, 3.1절 기념식에서 대통령은 웨스트 샷인데 반해, 임정 기념식에서 국무총리는 미디엄 샷으로 중계되었다. 이 또한 피사체(담화자)의 크기를 3.1운동 기념식이 임정 기념식보다 더욱 시각적으로 크게 강조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기념사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건립에 대한 계획이 표명되었는데, 기념사 이후 사회자의 소개로 관련 영상이 중계되었다. 이는 논디제시스적인 구성으로 앞서 언급한 별도의 다큐멘터리로써, 영상은 임시정부의 여정에 대해 내레이션과 그래픽 및 자료 사진 그리고 2017년 광복절 경축식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관 건립 담화 발표로 구성되어 있었다.

임정 기념식의 마지막 순서는 가수 ‘하현우’와 ‘국립합창단’이 출연한 기념 공연이었다. 여기서도 임정 기념식의 스펙터클은 다시금 주목된다. 무대 뒤 전면을 스크린으로 활용하면서, 화려한 그래픽과 태극기 및 사진에 촬영된 시민들의 이미지, 수묵화 형식으로 그려진 산수화 이미지 그리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강조되었다.

적어도 기념식 중계에 한정하여 보면, 임정 기념식은 3.1운동 기념식보다 더욱 강렬한 스펙터클 경험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무대의 출연진들의 공연에 맞추어서 배경에 위치한 대형 스크린에서 제시되는 영상과의 조합을 통한 구성은 테마파크와 같은 공간형 콘텐츠에서 주로 활용하였던 기법으로, 관람객들로 하여금 공감각적 경험을 유도하는 무대 연출 기법이다. 이러한 구성은 3.1운동 기념식에서도 일부 활용되었지만, 임정 기념식은 야간에 진행되었기에 그 효과가 더욱 두드러졌다.

---

19) 3.1운동 기념사의 총 글자 수는 5025개, 낱말 수는 1392개이며, 자막 수가 39개인데 반해, 임정 기념사의 총 글자수는 2468개, 낱말 수는 662개이며, 자막 수가 9개이다. 기념사 자체의 분량은 3.1운동 기념사가 임정 기념사보다 약 2배 가량 많지만, 자막은 약 4배 이상으로 많게 제시되었다.

기념 공연 내내 기념식 참석자들 또한 휴대 조명 등을 활용하여 그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고, 불꽃 쇼 등과 같은 연출을 통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였다.<sup>20)</sup> 또한 임정 기념식 중계는 3.1운동 기념식 중계에서 강조되었던, 전국 각지에서의 개별 행사나 기념식 주최자의 동선 안내 등과 같은 별도의 부대 행사나 현장의 다른 중계 요소들이 없었고, 해당 기념식 내에서 진행되는 식순을 그대로 중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다원 중계 등과 같은 외부 요인 또한 없었기 때문에, 방송 지연이나 통신 장애 등과 같이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돌발 상황 드러나지 않았다. 이로 하여금, 임정 기념식 중계는 사회자의 역할 및 영상의 구성이 사전에 계획된 범위 내에서 충실히 진행된 것으로 비춰지며, 3.1운동 기념식 중계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시청 환경과 시청 경험을 제공한다. 덧붙여, 기념 공연에 대해서도 임정 기념식은 ‘1막, 2막’ 등과 같은 공연 및 연극 형식의 용어를 직접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그러한 극적 상황을 더욱 드러내었다. 이러한 전반적인 기념식의 구성적 특성들로 인해, 3.1운동 기념식 중계가 일종의 액자식 구성으로서 저널리즘적 논평을 포함하여 뉴스와 같은 픽션 장르의 생방송 시청 경험과 관련되고 있는 것에 반해, 임정 기념식 중계는 공연 및 유희형 콘텐츠와 같은 쇼 이벤트 관람 경험에 소구한다. 이러한 차이는 3.1운동이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선행하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그 위상을 더욱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대중적 참여가 있었던 3.1운동을 발판으로 삼아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된 것이라는 그 역할과 ‘역사적’ 의미에 비추어, 3.1운동 기념식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기념 문화적 실천 관습을 수용하였으며, 그에 따라 이 둘 기념식의 내용과 구성 및 형식에서 차이가 드러난 것이다.

20) 관련하여, 3.1운동 기념식에서는 기념식 사회자가 누차 강조하였던 공군 비행단의 비행 모습이 기념식 중계에서는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 V. 나가는 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념식은 기념식 중계를 통해 재현되면서 기념 실천의 대중적 확산의 일환이 된다. 이는 과거 사건, 기념, 기념식, 기념식 중계로 이어지는 재현 과정을 통해 구성되면서 현재적 의미를 획득한다. 이 과정에서 과거 사건의 선정과 기념 의지의 공표로서 기념일의 제정은 사회적 기억 개념을 통해 논의될 수 있지만, 기념식과 기념식 중계는 문화적 기억의 전제 속에서 다뤄질 때, 기억의 구성성과 재현성을 논의하는데 더욱 효과적이다. 관련하여, 본 연구의 대상이 기념식과 기념식 중계라 할 지라도, 기념식은 기념사라는 언어 수행이 그 내용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배경과 전제 속에서, 본 연구는 기존의 ‘1919년 100주년의 기념사 연구’의 관점을 수용하고, 이것이 문화적 형식 즉 기념식과 기념식 중계를 통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 본 것이었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의 탐색하고자 한 지점은 기념식과 기념식 중계가 하나의 세트임은 분명하지만, 중계라는 형식으로 다시금 재현되는 과정에서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한 것이다. 즉 기념식이라는 현실의 거행과 기념식 중계라는 영상 재현은 넓은 의미의 기념식 수행의 과정에서 작동되고 있는 문화적 실천들이기 때문이다. 이는 리얼리티와 기념식 중계라는 영상 재현이 어떻게 관계 맺음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이다. 바꾸어 말해, 기념식은 영상 재현 및 중계의 과정을 통해 기념의 현재적 위상을 영상 미학적 현실감과 이데올로기적 의미 체계 속에서 재공고하였다.

몽타주 기억이 의미하는 바는 이러한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앞서 본문에서 다룬 바와 같이, 기념식 중계는 계속되는 화면/영상의 선별과 배치를 통해 기념식의 의미를 특정하였다. 두 개의 기념식에서 보여준 일련의 순서에 입각한 각각의 프로그램의 선별과 배치는 물론이거니와

해당 현장을 중계하는 과정에서 1919년에 대한 기억은 특정한 의미로 수렴되었으며, 그에 따른 시각 경험도 통제되었다. 즉 기념식 중계는 단순한 송출이 아니라 이미지들 간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기억을 조직 및 재조직함과 동시에 그 중계 영상 뿐 만 아니라, 그것이 수용되는 상황까지도 ‘자연스러운 사회적 사실’임을 의도하고 있었다. 영상 재현이 과거를 기억하는 방법으로 활용될 때, 그것은 감각적, 미학적 차원에서 의미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볼 수 없으며, 이는 현재적 의미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정치문화적인 실천이자 이데올로기의 기제로 해석될 수 있다. 즉 과거 그리고 그것을 재현/기념하는 기념식을 포함하는 리얼리티는 몽타주 기억의 관점으로 포섭되어 새로운 리얼리즘을 획득한 것이다. 덧붙여, 이는 다양한 카메라의 이동 및 피사체의 구성 등과 같은 다소 전통적인 영상 재현 관습과 더불어 컴퓨터 그래픽이나 5G 기술과 같은 뉴미디어의 활용과 홍보를 통해 기념식 현장과 기념식 중계의 시청가정을 한 데 엮는 이 시대의 문화적 기억의 특징이기도 하다.

끝으로, 기념을 위한 참여 주체의 복수성 그리고 국가 기념일의 공유 주체인 국민 혹은 시민의 존재가 이들 기념식의 전제 조건이라는 점에서 이들 양 기념식에서는 유독 국민 및 일반 시민의 직접적 참여 프로그램이 다수 편성되었다. 이는 해당 기념식의 의미의 내재화를 위해 기념사가 강조하였던 ‘우리’, ‘국민’을 언어 서술로서만 지시한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기념 행위 속에 참여시킴으로서 이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기념 주체로 호명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또한 이미 계획되고 선발되는 과정을 통해 제시된 연출임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이들의 직접적 참여의 확대가 3.1운동과 임정 수립 100주년이라는 기억의 공유와 확산에 더욱 효과적인 것 또한 분명하다. 이를 통해 3.1운동과 임정 수립의 의미가 정부 및 정책 입안자들 의해서만 제창되고 선언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과 국민 및 시민들에 의해 스스로 발언되고 그에 따른 기억의 의미가 공표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개인들 스스로가 집단 기억의 담지자가

되도록 함으로써 국가 기념일이라는 기념의 정치적 의미가 더욱 ‘세련된’ 형태로 각색됨과 동시에 ‘유연한’ 통치성의 실현으로 이어지는 상황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미디어 기술이 수반되었으며, 이는 기념식 현장 참여자들은 물론이고 중계 시청자들에게도 새로운 기술적 스펙터클로 제공됨으로써 그 기념의 통치성의 의미를 간과토록 하고 아울러 적극적으로 미디어 기술의 새로움에 동조토록 하였다. 이로써, 2019년은 이러한 미디어 기술의 향연과 대중적 참여 속에서 1919년의 의미가 재확인된 해가 되었으며, 앞으로의 새로운 100주년을 기약하기 위한 원년이 된 것이다.



## 참고문헌

- 태지호, 「텔레비전 다큐멘터리를 통한 사회적 기억제도로서의 영상 재현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26, 한국방송학회, 2012, 431~471쪽.
- \_\_\_\_\_, 「1919년은 어떻게 기억되는가 -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를 중심으로」, 『기호학연구』 63, 한국기호학회, 2020, 209~241쪽.
- Durkheim, E., *(Les) Regles de la methode sociologique*, 윤병철 외 역, 『사회학적 방법의 규칙들』, 새물결, 2001.
- Dayan, D. & Katz, E., *Media Events: The Live Broadcasting of History*, 곽현자 역, 『미디어 이벤트』, 한울, 2011.
- Hobsbawm, E., *The Invention of Tradition*, 박지향 역, 『만들어진 전통』, 휴머니트스, 2004.
- Mcluhan, H. M., *Understanding media: the extensions of man*, 『미디어의 이해』, 박정규 역, 커뮤니케이션북스, 1999.
- Shils, E., *Tradition*, 『전통』, 김병선 · 신현숙 공역, 민음사, 1992.
- Anderson, B.,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Verso, 1991.
- Connerton, P., *How societies remember*,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 Zillmann, D. & Vorderer, P., *Media Entertainment: The Psychology of Its Appeal*, Lawrence Erlbaum Associates, 2000.

## How is 1919 Remembered II:

Focusing on the 100th Commemoration of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and the 100th Commemor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ae, Ji-H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historical significance and implications of the March 1st Movement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commemoration of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March 1st Movement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is, this study has suggested a proposition that the memory, commemoration, and broadcasting the commemoration are in the process of a series of consecutive representations and addressed the fact that the commemoration and broadcasting the commemoration, in particular, imply the institutional practice and representation convention. First of all, the study has discussed that the commemoration features modern governance as a memory performance embodied among the participants and addressed that broadcasting of the commemoration is a part of montage memory built in the television reproduction system while sharing the characteristics of media events presented as the epitome of everyday cultural politics. For this discussion, this study has adopted the commemoration broadcasting as a specific research subject, through which the study has dealt with the representation of its broadcasting while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the commemoration. The study has found that both commemorations are a cultural practice of implementing the two separate values of nobility and play with public participation and media's feast while consolidating the meaning of the commemoration. In addition, the commemoration

broadcasting has been confirmed to be a new media event with the media constitutive practice added to the actual status of the commemoration. This study finds its significance in that it discusses the commemorations that are not addressed in my previous study, ‘How is 1919 remembered?’, thus building up the continuity of research history while inheriting and complementing the previous studies.

Keywords : Commemoration, Commemoration Broadcasting, Media Event, Cultural Memory, Memory Representation, March 1<sup>st</sup> Movement,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투고일: 2021. 01. 29./ 심사일: 2021. 03. 11./ 심사완료일: 2021. 03. 12.

